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공청회

일 시: 2023년 7월 16일 (일) 14:00~16:00

장 소: 동래 중학교 1층 시청각실

유튜브 '청포도 TV' 온라인 동시 송출

주최:



부산광역시교육청

주관: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



CONTENTS

제 1 부

회복과 치유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평화로운 가정과 마을 만들기

발표 : 이재영 원장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제 2 부

교육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토론 : 아영아 교수 (신라대학교 상담심리복지학과)

김은규 교사 (만덕고등학교)

조연진 학부모 (충렬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회복과 치유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

발표

이재영 원장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회복과 치유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재영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원장)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평화로운 가정과 마을 만들기

“회복과 치유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재영 원장



이재영 대표
사)회복적정의협회 / 평화교육훈련원(KOPI)

미국과 캐나다에서 갈등전환, 회복적 정의 관련분야 전공
한국사회에 회복적 정의 영역 개척
회복적 정의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



<경력>

-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 전국 교육지원청 조정지원단 교육
- 경찰청 회복적 경찰활동 자문위원
- 서울시, 경기도 교육청 정책자문위원
- 서울삼성병원 회복적 병원 만들기
- 서울가정법원, 검찰청, 경찰청 자문 및 교육위원

<저서>

- 회복적 정의, 세상을 치유하다 (2020)
- 학교현장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역서, 2011)

청소년 문제 이웃 분쟁 소년 범죄

...

엄벌주의

2022년 문제의 사진한장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2023년 논란의 장면: 학교폭력

학폭처분에도 서울대 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속보]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사의 표명



“학폭법 손봐야!”
“서울대 합격취소해야!”
“학폭에 변호사 개입 안타까워”
“정시에 반영해야...”
“학폭기록 최대 10년 연장 추진”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과연 사법적 접근이 학교를 구해 줄 것인가?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 ✓ 학교폭력 처분결과 생활기록부 기재

20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제정”

- ✓ 2021년 개정(10조2항 신고의무)

2019년 “학폭법 일부 개정”

- ✓ 학교장종결제, 심의기구 지역교육청 이관

2019년 “교원지위법 개정”

- ✓ 2022년 개정안(교권침해학생의 침해행위 생활기록부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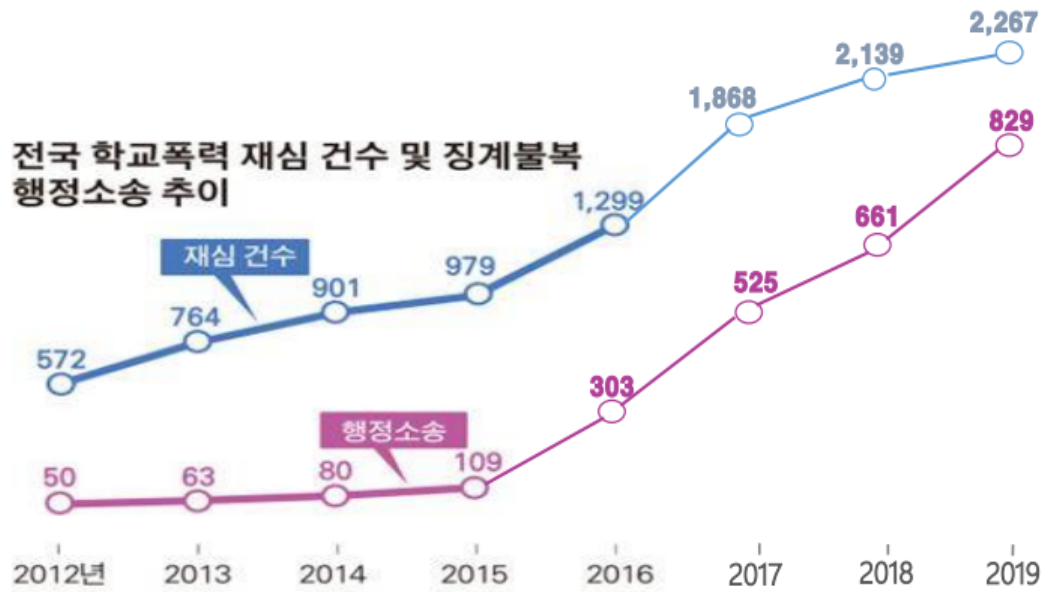
2021년 “즉시 분리조치”

- ✓ 학폭신고시 최장 3일간 피-가해학생 분리조치

2023년 “보존기간 연장 및 대입반영 강화”

- ✓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검토
- ✓ 학폭 가해학생 처분결과 보존기간 4년으로 확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출처: 교육부 (김병욱 의원실)

날로 늘어나는 소송 늘어나는 학교폭력 전문 법률사무소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교대 간다는 자식들 못 가게 해라”… 극한 직업 선생님, 교대 재학생수 급감 (헤럴드경제 2023. 2. 4)

교대 사대 간다는 자식들 절대 못 가게해

미래가 없다

제발 안정적인 직장이다 뭐다 하면서 교사시키지마

누가 안정적이라?

요즘 말로 살짝 혼내기만 해도 아동학대 신고 당해

법적으로 봉변당하는거지

애들 날뛰는 것도 심해져서 금쪽이 천치고

언제든 학생한테 맞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안고 살아감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이라 감정홍조 & 스트레스로 심장

두근거림 생김

연금 개박살이라 메리트 없음

나도 부모 추천으로 아무 생각없이 교사됐는데

깡은 사라지고 악만 남았네

버티기 힘들다 ㅋㅋ



우리반에 교사 꿈이라는 애들 보면 현실감각 없고 너무 순수한

애들이라 한숨 절로 나온다 예효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문제는
‘정의(正義)’
패러다임

응보적 정의라는
모노렌즈에 갇혀버린 사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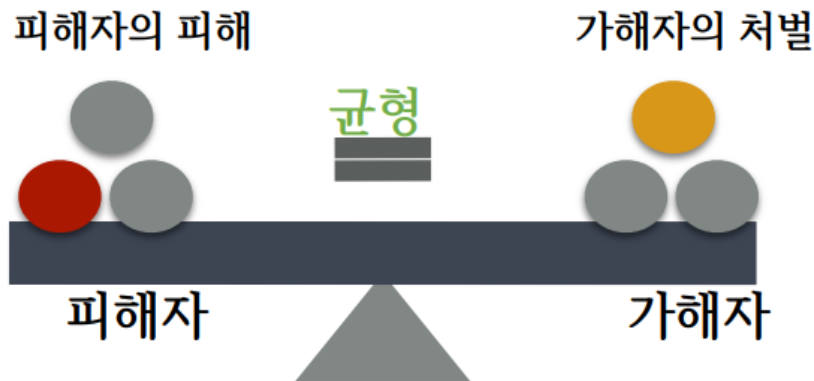
정의의 여신: 저울과 칼

응보적 정의

...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공정하게 죄의 값을 재서
그 값에 해당하는
엄격한 벌을 내리는 것

응보적 정의의 원리



과연 가해자에게 주는 고통은 피해자의 고통을
자동으로 없애주는가?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

잘못이 발생했을 때

그 **영향**과 **피해**를 입은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피해가 최대한 **회복**되도록

당사자의 **자발적 책임**과

피해자와 **공동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초점

목적

책임

주체

응보적 정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가해(자)를 바로 잡는 것

회복적 정의

자발적 책임을 통해 잘못이 일으킨 피해(자)를 회복하는 것

회복적 정의의 여신이 필요하다!



회복적 정의 여신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까?



[한국평화교육훈련원 KOPI]



회복적 정의 실천

적용1: ‘회복적 정의 배우기’

생활지도, 가정교육, 훈육의 목적

단기적 목적

바른 행동에 대해 설명해
문제행동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

장기적 목적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알고 책임지며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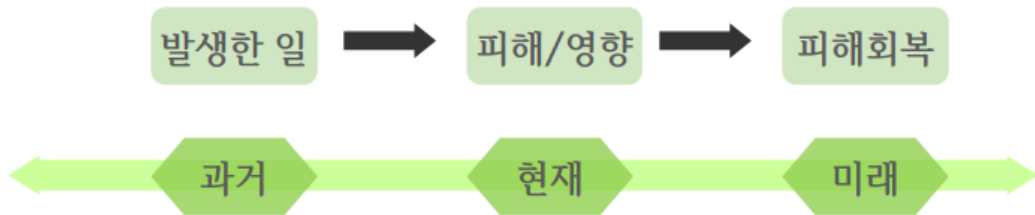
가정교육의 스펙트럼

제3의 길 필요



미래시제의 정의 패러다임

회복적 관점



응보적 관점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회복적 정의가 회복하고자 하는 요소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으로써
죄를 씻으라!”

응보적 메시지

회복적 메시지

“피해를 회복하는
자발적 책임을 통해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라!”



회복적 정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잘못은 피해를 낳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정의로운 해결이다!”

회복적 정의 실천

적용2: ‘부모의 질문을 바꾸라’

질문의 힘이 곧
교육의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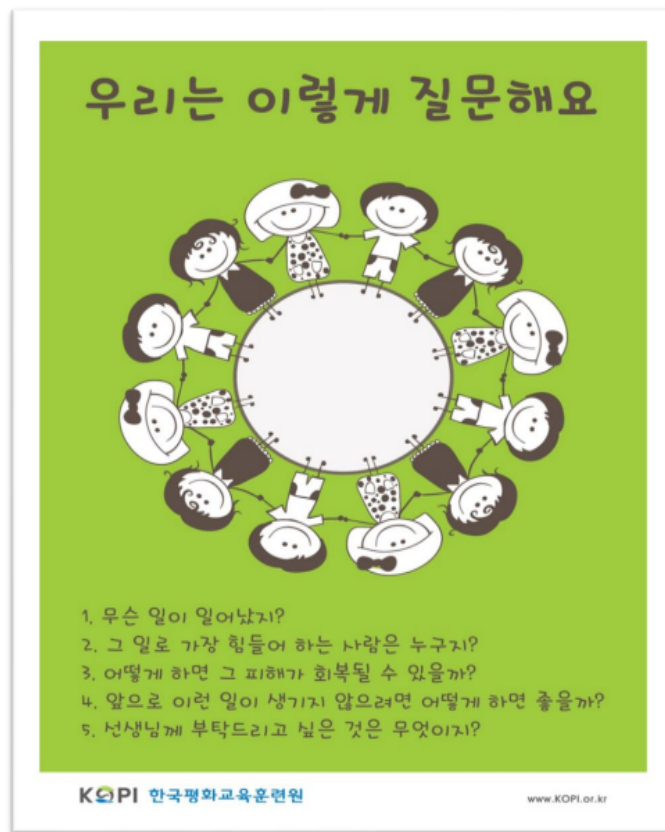
질문이 달라져야
사고의 범위가 달라진다.

실천 1. 질문을 바꿉시다!

응보적 정의	회복적 정의
✓ 누가 잘못된 사람인가? ✓ 어떤 법(규칙)을 어겼는가? ✓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 어떤 영향/피해가 발생했는가? ✓ 발생한 영향/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회복적 성찰문	담임교사	부모님	학년부장
1.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말, 행동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중립적 관점)			
2. 자신의 행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들)라고 생각하나요? (피해초점)			
3.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자발적 책임)			
4. 선생님과 주변(학부모, 급우)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공동체 책임)			
5. 이번 일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은 무엇인가요? (교육적 관점)			
2018년 0월 0일 학번 : 이름 :			

회복적 질문 포스터



평화로운 공동체 만들기

- ✓ 들어라!: 공감경청
- ✓ 물어라!: 회복적 질문
- ✓ 둘러앉으라!: 공동체 서클

공동체란...

내가 가장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면,
또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
그 자리를 메우더군요.



회복적 가정에서 회복적 도시로



회복적 도시의 탄생

- 영국의 헐 시티 (Hull City)
 - 인구 25만(청소년 약 5만)
 - 과거 수산업도시로 번영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 실업, 범죄, 청소년 문제 등으로 도시환경이 어려워짐
 - 2000년대 들어 세계 최초의 회복적 도시 실험이 시작된 도시



copyright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회복적 도시의 탄생

- 2004년 Collingwood 초등학교에 회복적 생활교육 접근방식 도입(Estelle Macdonald 교장)
- 2년 후 영국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환경 평가에서 '최악'에서 '최상'으로 변화됨
- 이 후 Endeavour High School 등 주변학교로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생활교육이 확대되어 나감
- 2007년 관할구 중 하나인 리버사이드(Riverside) 지역에서 구청직원, 학교교사, 학부모 단체, 가족치유 및 상담시설, 복지관, 보건시설, 청소년상담지원, 경찰, 보호관찰관 등 총 3500여 명이 회복적 정의 관련 훈련을 받음



회복적 도시의 탄생

- 리버사이트 프로젝트의 성공이 후 2008년부터
헐 시티 경찰서 직원전체에 회복적 정의 워크숍 의무 실행
- 65명의 경찰에게 전문 진행자 훈련을 이수하게 하여
경범죄에 한해 회복적 대화모임을 도입함
- 2008년 이후 시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보는 모든 공무원에게 훈련을 이수하게 하여,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데 회복적 접근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경찰의 회복적 접근은 소년범죄 재범률을 50% 가까이
경감시켜왔다. 회복적 정의는 결코 약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초기부터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접근이다.”

제임스 그랜스필드(James Glansfield) 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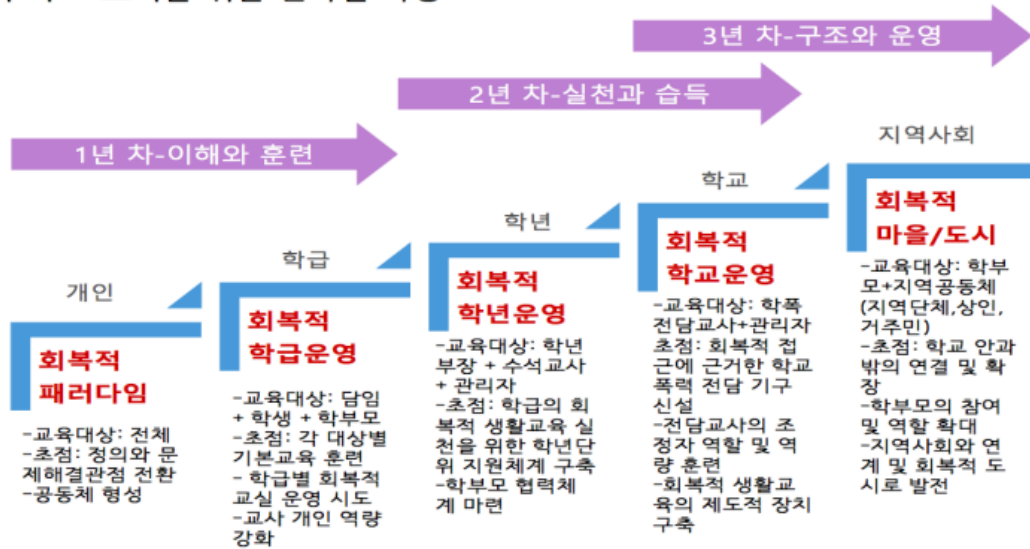
회복적 학교



김해봉황초등학교

회복적 학교 만들기 - 3년

회복적 학교-도시를 위한 연차별 과정



배움, 나눔 살아있는 학교 위해 함께 노력

2019. 2. 27 경남매일

미래학교 모델 김해봉황초등학교

전문학습공동체, 학부모 교육 등... 회복적 학교 - 특색 있는 교육과정 눈길



회복적 학교의 실험

우리학교가 지난 몇 년간 생활지도에 있어 가장 좋았던 점은 우리는 ‘회복적 학교’라는 인식이 공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를 같이 받고 철학을 공유하고 생활지도의 방향성을 통일해왔기 때문에, 다른 반과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선생님이 다르게 하면 어떻하더라는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일관성 있게 지도를 하시고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기에 스스로 ‘난 안전하구나’하고 갈등상황을 안전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3년간 회복적 학교 실험을 해온 김해 봉황초 6학년 교사

회복적 사법



남양주경찰서 사랑의 교실

회복적 사법



경찰, 검찰, 법원, 교정

[한국평화교육훈련원 KOPI]

회복적 경찰활동



15개 시범경찰서 진행
2020년 전국 확대실시 예정



회복적 아파트

위스테인별내사회적협동조합
회복적 아파트를 위한
갈등조정 마을활동가 양성 과정

목 적

- 회복적 아파트를 넘어 회복적 도시 구현
- 건강한 공동체 실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 서울을 통한 초합원간 신뢰의 관계망 형성
- 회복적 정리의 마을 활동가 양성

기 간 2018.1.13 ~ 2.27(60시간)

장 소 남양주별내고등학교

주 최 위스테인별내사회적협동조합 / KOP 한국평화교육훈련원 / 공동체생활문화연구소

교 육 과 정

1단계	공동체형성1 1/13(토) 10:00~18:00	건강한 공동체와 회복적 정리의 이해	이재명 회장
	공동체형성2 1/20(토) 10:00~18:00	회복적 정리의 수직성의 긍정적 활용	정윤진 교육센터 소장
2단계	공동체강화 1/26(금)~27(토) 1박2일 워크숍	신뢰 서울의 이해와 적용	이영우 팀장
		신뢰 서울 진행의 단계와 실습	윤구석 팀장
3단계	공동체정화 2/3(토) 10:00~18:00	회복적 서울 이해와 실습	신호승 이사장
		갈등전환의 이해	이재명 회장
4단계	공동체회복 2/23(금) 2/24(토)	분쟁조정 기초훈련 및 수료식	이영우 팀장 이재명 회장



위스테인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

43

영국의 사례로부터 배운다. Hull City



회복적도시 해외전문가 초청강연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회복적 도시** 세계최초의 회복적 도시 영국 Hull City로부터 배운다!

강사 : 크리스토퍼 스트레이커(Christopher Straker)

영국 회복적 정의 협의회 회장
 회복적 실천 국제기관 이사
 할 시티(Hull City) 회복적 실천 센터 교육 및 컨설팅
 30여 년 교직에 있으면서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로 일했으며,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유럽 등에서 회복적 실천을 위한 활동을 해왔음

주제발제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회복적 도시
 (세계최초의 회복적 도시 영국 Hull City로부터 배운다)
 ~ Christopher Straker 영국회복적정의협의회 회장

논찬 한국 회복적 도시의 시도들
 ~ 이재명 한국회복적정의협의회 이사장,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원장

일시 : 2018년 11월 5일(월) 오후 3~5시

장소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강당(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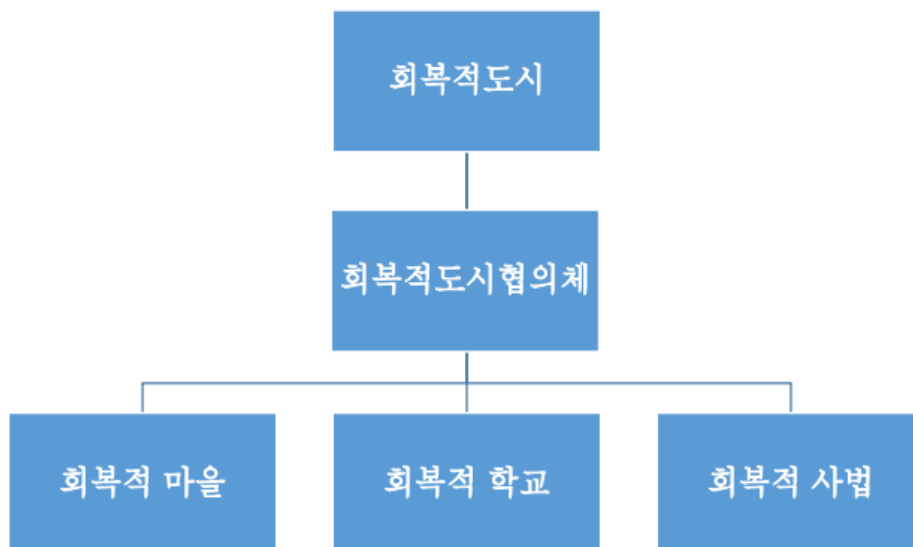
주최 및 주관 : 남양주시회복적도시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의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경찰서,
 위스테인별내사회적협동조합, 관내초·미·중·고교생협동조합

회복적 도시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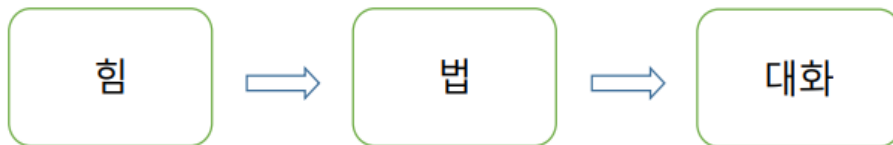
회복적 가정
회복적 학교
회복적 도시



회복적 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국사회의 갈등대응에 대한 문화적 변화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회복적 정의 - 세상을 치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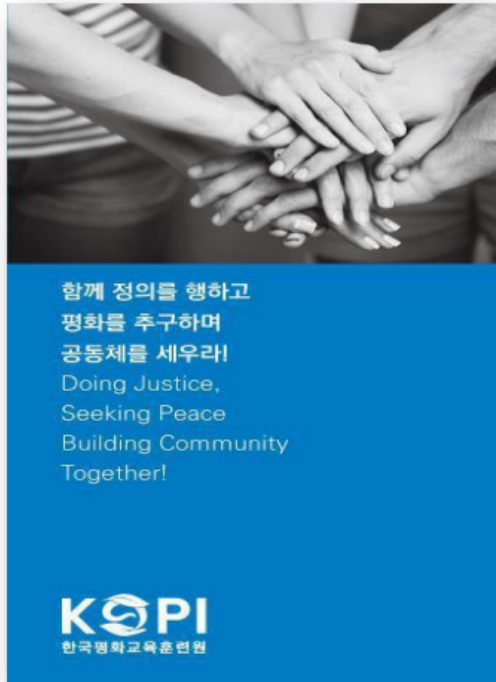
이 책은 회복적 정의의 핸드북이자 백과사전이다.

- 조균석 교수, 이화여대 회복적사법센터

회복적 정의의 넓이와 깊이를 총망라하고 있는 이 책은 회복적 정의를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 박숙영 소장, 좋은교사 회복적생활교육센터

[한국평화교육훈련원 KOPI]



www.kopi.or.kr

 facebook/korearj
(회복적 정의)

문의: 031)521-8697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토론

아영아 교수
신라대학교 상담심리복지학과

김은규 교사
만덕고등학교

조연진 학부모
충렬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아영아 (신라대학교 상담심리복지학과 교수)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토론자 아 영 아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정책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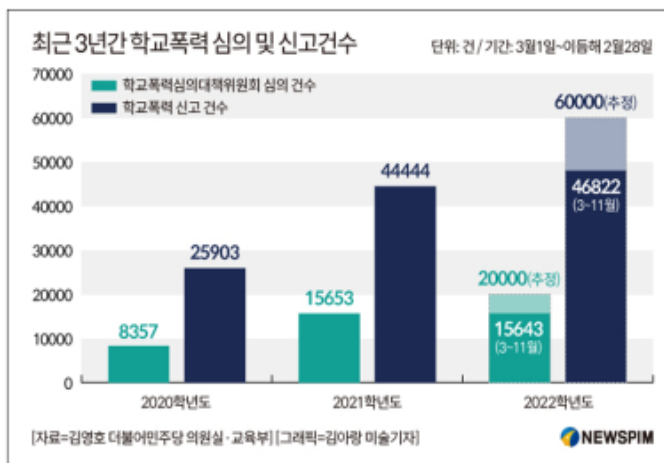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정책 흐름

- ✓ 1990년 대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 논의 시작
- ✓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여 차례 개정
- ✓ 그러나 학폭법은 예방보다는 대응에 관한 법률 성격이 강함
- ✓ 또한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 처벌에 초점
- ✓ 2005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실시 후 현재 제4차 기본계획 시행 중
- ✓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 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폭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가해자 엄벌주의를 강화

2. 학교폭력 현황

학교폭력 심의 건수



징계불복 건수 급증

학교폭력 조치 불복 행정심판 청구 현황

●단위 건 ●자료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교육부



3. 학교폭력 후유증



피해, 방관, 가해 학생 및 공동체 파괴



4. 학교폭력 및 대응의 특성



5.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5.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1 엄벌주의 강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변경(안)>

조치	현행	개선
1·2·3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	•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 예외: 졸업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6·7호	•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원칙: 졸업 후 4년 보존 •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8호	• 졸업 후 예외 없이 2년 보존	•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 보존
9호	• 영구보존(삭제 불가)	

- 대학입학(수능, 정시, 논술/실기 전형) 및 졸업 시까지도 불이익

- 피해학생 동의확인서
-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 확인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6.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2 보호조치 강화

강화 1) 즉시 분리 3일→7일 이내

2)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 서면사과(1호)

강화 •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 2호 의무화

- 학교봉사(3호)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5호)

강화 • 출석정지(6호) 10일 → '심의결정시' 까지 가능

신설 • 학급교체(7호)

신설 • 피해학생 요청권 : 가해학생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5.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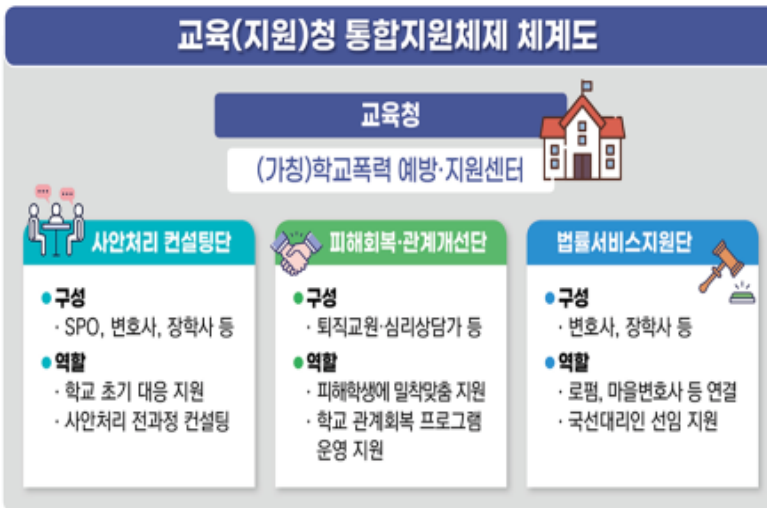
2 보호조치 강화

3) 맞춤형 밀착 지원

-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 도입(학교, 교육(지원)청)
-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확대(2023년 303곳 → 2024년 400곳)
-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제공(마을변호사 제도, 국선대리인 선임)

5.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3 현장 대응력 강화



교권 강화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
-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상의 책임 면제
-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배상책임보험 보장
-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경감 기준 마련

5.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4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유도 견인



6. 회복적 정의 실천을 위한 제언

1. 장기적 관점의 단계적 회복학교 환경 조성

- 2023년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은 더 글로리, 고위공직자 자녀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책이며,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없이 통제와 응징을 강조하여 법적 대응 및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23 종합대책은 미국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총기 사용의 미국과는 다른 현실이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핀란드의 “KiVaKoulu”((폭력이 없어) 신나는 학교) 프로그램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폭력이 없어 신나는 학교생활을 위한 환경 조성의 단계적 접근 방법을 논의

6. 회복적 정의 실천을 위한 제언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예방 관련 내용 구체화 및 기능 강화

- 동법의 예방기능은 그저 ‘예방정책을 수립한다’는 정도로 나와 있고, 추상적 서술어로 채워져 있음. 구체적인 예방책의 수립과 관련된 예방정책 개발과 유형, 그리고 개수, 예방정책들의 상호기능, 실험과 피드백의 구체성 결여. 동법은 사후처리과정에 대한 해결법 중심이라 볼 수 있음
 - 유치원부터 예방교육 실시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 학부모 교육의 내실화(유급휴가 지정 등)
 - 회복적 학교 확대
 - 미·고(미안해, 고마워) 운동 추진

6. 회복적 정의 실천을 위한 제언

3. 실제적이고 피해회복을 우선하는 피해자 지원 필요

- 23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피해자 보호는 피해학생 전담지원관(학교, 지원청) 도입, Wee센터를 비롯한 전문지원기관을 400곳으로 확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구성됨. 피해자를 위한 많은 지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와 관계된 기관에서 피해학생이 상담을 받을지 의문이며, 기존 기관과 업무 중복도 있음
-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학급 혹은 학교 공동체의 피해 인정이 우선임
 - 사회서비스 바우처 연계
 - 피해자 욕구에 맞춘 피해회복 지원

6. 회복적 정의 실천을 위한 제언

4. 방관자에 대한 개입은 어디에 있는가?

- 23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로 한정하고 있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은 방관하는 제3의 학생들이 피해자를 옹호하고 조력하는 힘을 가지는 것에서 출발하며, 공동체 회복의 가장 중요한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함. 또한 방관자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다수의 학생들도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치유적 개입도 필요함
 - 방관자에 대한 행동 매뉴얼 제작
 - 방관자에 대한 치유적 개입

6. 회복적 정의 실천을 위한 제언

5. 자발적 책임을 통한 엄벌

- 23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부의 기록 보존기간 연장으로 낙인과 소송 증가 등의 부작용 우려. 가해자의 행동이 피해자와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알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한 이후 처벌이 이루어지는 단계적 개입이 필요
- 23 대책은 가해자 엄벌강화 내용 외 교육적 개입이 부족함. 학교폭력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하였으나 가해자 또한 우리사회가 포용해야 하는 대상
 - 징계 혹은 사안종료 이후 일정기간 사후관리 상담
 - 엄벌주의와 교육적 조치 병행

6. 회복적 정의 실천을 위한 제언

6. 교사의 교육적·회복적 권한 강화

- 학교폭력의 다수는 교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교사라는 점에서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이고 회복적 개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 시스템은 교사의 개입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음.
- 현 학교폭력 대응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학교장해결 2범주이고, 23 대책에서는 학교장 긴급조치가 강화되었으나 교사개입의 범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행위를 체계적이고 세분화해서 교사의 권한과 책임 관계 명확하게 해야 함
 - 담임교사 종결제 마련

6. 회복적 정의 실천을 위한 제언

7. 사안조사 이후 분리조치

- 23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 기간을 연장하고(3일에서 7일), 분리 이후에도 피해학생의 요청 시 학교장이 가해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도 할 수 있음. 사안의 실체와 경중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분리를 강제하고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억울한 이를 만들어내거나, 사안에 비해 과장된 낙인 효과를 키울 수 있음.
- 학교폭력은 피해와 가해가 중첩되는 경우 신고를 먼저 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사안처리의 공정성도 해칠 수 있으며, 무조건 신고부터 먼저 하려는 부작용 우려됨
 - 사안조사 이후 상황에 따른 분리조치

6. 회복적 정의 실천을 위한 제언

8. 회복전문가 양성 및 배치

- 23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가칭)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를 17개 시도에 설립하여 퇴직교원 및 심리상담가 등을 통해 피해해복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지원. 상담과 관계회복 영역은 다르다는 점에서 회복실천 전문가 양성을 통한 배치가 필요함
-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심의과정에 불복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
 - 회복전문가 자격과정 개설
 - 학교폭력 관련자들 회복적 정의 교육 및 연수 의무화

THANK YOU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변화의 지점들

김은규 (만덕고등학교 교사)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년부장입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중학교 3년 시절을 마스크를 쓰고 지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에는 학교에 등교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비슷비슷합니다.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중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 3학년 때에는 등교하는 날은 많아졌지만, 시험 대형으로 늘어선 책상 줄과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로 서로 긴밀하게 감정을 교류하거나 관계의 확장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중학생 무렵이면 한참 자신을 탐색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러한 탐색은 개인적인 사고 과정에서도 일어나지만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보다 크고 깊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3년을 마스크에 숨어지낸 탓에 자신에 대한 탐색이나, 관계를 맺는 법이 서툴기도 합니다.

한 학기를 지나오면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문은 관계맺기에 관한 것이 많았습니다.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친 학생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00야 혹시 무슨 일 있니? 선생님이 보기에 네 표정이 많이 힘들어 보여.`` 말을 붙였더니, 금세 눈에는 눈물이 그렇그렇합니다. 쉬는 시간 복도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동 중이라, 비어 있는 교실로 데리고 가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학생은 마스크 안으로 소리를 삼키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학생도 학급 친구 사이에서의 관계 맺기를 힘들어 했습니다. 무언가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해 했습니다.

올해 접수된 학교 폭력 사안은 한 건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두 명의 구성원 사이에서 일처리 방식에서의 차이가 언어적인 폭력으로 비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이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각자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언어로 서로 나누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과할 내용을 사과하는 데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이 대화 모임, 조정 모임을 진행을 학교 교사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방과 후에 시간을 내고, 학생들은 하교 시간을 늦추었습니다. 모두가 이 사안을 잘 처리해서 갈등을 조정하고픈 마음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다고 생각했으나, 그 다음날 상황은 더 안좋아졌습니다. 한 쪽에서 충분한 사과를 받은 것 같지 않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안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관계에서의 안전함, 친밀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야 학교 생활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편으로는 이 관계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의 대화나 표현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고, 폭력적인 감정이나 행동으로 이어져서 상황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일상 생활에서의 안전한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에 담임 교사의 노력을 많이 들이는 편입니다. 학급 신뢰 서클 말입니다. 이번 1학기 교육활동을 평가하면서 학생들에게서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학급 신뢰 서클이 좋았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내 생각을 잘 말할 수 있었다.' 나와 다른 존재를 알아가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했으며, 이런 것으로 안전한 거리를 찾아가는 것이 긍정적이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인지 일부 관계가 바뀌어가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 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회복적 생활교육을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화 모임을 진행하거나 갈등 조정을 시도하는 노력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 사례에서처럼 양쪽 모두 기대하는 바가 있어 대화 모임, 조정 모임으로 이어졌으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의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이 꼭 좋은 결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은 갈등 조정을 위해 애쓴 교사의 전문성 부족이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갈등 조정에 관한 기초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선의를 갖고서 시도했으나,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미흡함이 학생들의 원만한 조정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학생들과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는 교사가 조정자 역할을 맡다 보니, 당사자와의 거리 조정에도 실패한 것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은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생활지도 방식은 처벌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어서 학생의 성장, 책임, 변화를 이끌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처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가해와 피해를 구분하고 분리하며 가해자 처벌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가해자의 책임이나 피해자의 회복은 은연중에 사라지고 처벌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걸 지켜보는 교사의 마음은 무척 씁쓸합니다.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은 커녕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때, 교육은 힘을 잃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등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뜻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교사의 갈등 조정 전문성을 키운다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당사자와의 거리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남 교육청에서 시도하고 있는 갈등 조정 지원단의 지원 사례가 무척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 조정을 위한 수준 높은 훈련을 마친 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학교 폭력 사건을 당사자간의 갈등 조정으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책임과 회복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모두를 살리는 교육으로 보였습니다.

학교 폭력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참 변화하고 성장할 시기의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관계되면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찮습니다. 그래서 평소 학생들의 관계가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한 일상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모두가 책임지고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전함을 위한 일상의 노력, 위기를 교육적 성장의 기회로 보는 관점의 변화, 관점의 변화를 공유하려는 교육 당국의 노력, 전문가 양성과 그들을 현장에 지원하는 제도 마련 등, 학교 안과 밖이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역지사지의 공감능력을 키우는 교육

조연진 (충렬고등학교 학부모회 대표)

1.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생각과 우려되는 부분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학부모로서 걱정이 큼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학교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보면 학교폭력과 무관한 학생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학생들. 친구들이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 아이는 어떤 마음이나 태도를 가졌을까 궁금해집니다.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해 주거나, 가해자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했을까. 아니면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 다수의 학생들은 친구들의 갈등에 적극 개입하지 못하고, 방관자의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다. 상처 입은 피해자나 친구를 괴롭힌 가해자는 물론, 이런 방관자들도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일도 개입하지 않는 방식이 지속되면,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일에 무관심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기르게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학급(학교)라는 조직안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청소년들은 싸우면서 크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이 심각한 상처를 입고 학교를 졸업한 뒤에까지 오랫동안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는 사례들을 접하면서, 어떻게 하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 피해율이 약 1.7% 정도인데 그 중 40% 이상이 언어폭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커지는 일들은 따돌림 신체 폭력 등이 아닐까 싶은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교육이 적극적으로 많이 이뤄져서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판단력을 갖고 있지만, 언어폭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인식이 낮은 것 같습니다. 가해 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일 가능성이 거의 80%라고 하니 부모로서 더욱 걱정이 됩니다. 특히 언어폭력이란 심한 욕설, 놀림, 헐뜯 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서부터 폭력인지 구분 짓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들어서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쁜 말은 상대방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야 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보면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고 자기 공부에만 급급하다 보니 그런 공감 능력을 키워줄 교육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워낙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그 영향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는 매체들을 들어보면 정상적인 단어보다는 욕설이 더 많고, 게임 등이나 하는 말은 거의 일반 어른들은 알아들을 수조차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칼과 같다고 하는데, 칼이란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자칫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것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아이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언어습관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고, 학교 선생님들도 너무나 일이 많겠지만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생활, 공감력을 키우는 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선생님께 들은 얘기를 전하면, 친구를 놀리는 말을 한 학생에게 “네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겠냐”라고 하니 “못 참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이 상대방을 모욕하는 의미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공감능력의 부족, 나만 생각하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역지사지의 사고 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2. 앞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 처리에 있어 나아가야 할 방향성

학교폭력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것은 각박한 교육 환경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경쟁에 내몰리고 성적, 입시, 진로 문제로 마음이 힘들어지니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친구 관계를 잘 맺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감수성을 키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자들이 크게 곤란을 겪는 것을 보면 다른 학생들도 조심을 할 터이니,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재영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상처 회복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은 피해자의 상처 입은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해자도 잘 교육받아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놀리고 괴롭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용납되는 전체 학급-학교 문화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아니라 학급(학교)에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관계 회복 교육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싸움도 없이 화목하게만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금방 잘 회복할 수 있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안 좋은 일이 있었으나 더 많이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Memo